κόκκος 7

2019 JUL VOL. 208

코코스는 '한알의 밀'을 의미 / 발행인 강우정 / 편집주간 이강동 /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 02-950-5401 / www.bible.ac.kr

제 2 차 교직원 연수회가 강화도에서 진행되었다 . 교회설립 126 주년을 맞는 강화교산교회 (1893 년) 를 방문한 교직원들이 복음의 첫 겨자씨가 심어진 과정을 들은 후 교회 앞에 모여서 화이팅을 다짐하고 있다 . (관련기사 6 면)

'대학자생능력확보' T/F 2 개 팀

대학위기의 시대 , 공동체 스스로 자립기반 마련을 !

▲ '대학자생능력확보' TF 제 2 팀이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파이팅을 외쳤다.
[왼쪽 아래쪽 정휘진 법인국장, 김은호 부총장, 강우정 총장, 김중완 행정본부장, 최육렬 평생교육원장 / 왼쪽 뒷줄 정영은 (사무팀) 직원, 전영호 (대외협력실) 직원, 권오섭 (포천밀알훈련센터) 직원, 권경만 기획실장, 김현동 평생교육원 1 팀장, 김역직 평생교육원 2 팀장]

우리대학의 자생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 대학자생능력확보 ' TF 팀이 지난 2 월 26 일 구성 이후 두 번째 모임을 가졌다. 인구절벽으로 입학자원이 고갈되고 11 년 째 등록금 동결로 학교재정은 바닥을 드러냈다. 대학이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 그 어느 때 보다 더 요구되고 있다.

강우정 총장은 모두 발언에서 " 대학을 둘러싼 환경은 입학자원 감소, 재정 악화 등 두 가지 악재가 겹쳐 엄습하고 있어 우리 같은 소규모 대학은 조금만 방심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 고 경고하였다. 그는 " 우리 대학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그나마 숨을 고를 수 있는 이 때가 기회이다. 온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발 빠르게 자생 능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 고 강조하였다.

' 대학자생능력확보 ' TF 팀은 2 개의 팀으로 운영되는데 1 팀은 전공교육부장 중심으로 각 학과장과 교학팀을 축으로 입시와 재학생의 학사, 휴 · 복학관리 및 중도탈락 최소화를 목표로 대책을 추진한다. 제 2 팀은 법인사무국 (수익재산의 수익증대) 과 대외협력실 (성서대 돕기운동), 평생교육원과 어학원 (평생교육 사업 확장으로 수입 극대화), 사무팀 (교내 각종사업의 활성화) 으로 구성 되었으며 년간 목표를 세우고 달려 간다.

TF 제 1 팀은 18 일 모임을 가졌다. 권경만 기획실장은 우리대학의 중도탈락 및 휴복학의 3 년간 추세를 보고하고 우려를 나타냈다. 우리 대학의 2018 년 기준, 휴학율은 16.65%(전체 평균 25.66%) 로 보통수준을 따라가고 있지만 중도탈락율은 5.65%(전체 평균 4.11%) 로 51 개 수도권 (자율개선대학) 대학 중 48 위로 하위 20% 에 속한다. 특히 최근 3 년간 중도탈락율이 증가 추세를 보여줬다는 점이 더 심각한 문제이다. 학과장들은 학과 간 협력과 학생 개개인별 환경 등을 세밀히 살펴 맞춤형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각 전공의 상담성공사례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상담의 실제에 대한 워크숍도 추진할 예정이다.

제 2 팀은 20 일 모였다. 권경만 기획실장은 " 제 2 팀의 연간 목표금액은 34 억 3 천만 원이며 현재 달성율 (3~5 월) 은 10 억 원 (35%)" 이라고 밝혔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이는 양호한 성적이다. 그러나 " 승강기 교체 후원금이 집중된 점을 고려한다면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 라고 덧붙였다. 정휘진 법인국장은 " 포천양수발전소 건립안에 따르면 학교 소유 임야 약 30 여만 평이 수몰지역으로 들어갈 것이며 보상액도 상당할 것 같다고 말하였다. 대외협력실은 성서공동체를 아우르는 창의적인 이벤트 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사업별로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는 제안과 실적 향상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미니설교 미래보다 소중한 현재 (전 1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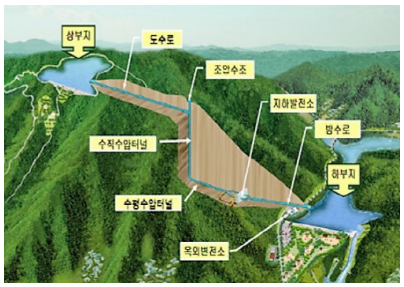
강규성 교수

사람들은 현재의 소중함을 모른다. 아니 알면서도 부인하려고 하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현재보다 언제나 미래를 말한다. 전도자는 미래는 불확실하며 " 알지 못한다 " 를 강조한다. 또한 "빛은 달콤하고 눈이 태양을 보는 것은 좋도다 (사역)" 라고 현재를 예찬한다. 빛과 태양은 생 (생) 을 위한 메타포로 살아있는 그 자체가 달콤하고 좋다는 찬사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항상 즐거워하라고 권면한다. 누가 그것을 모르는가 ? 그런데 현재가 고통스럽다면 어찌할 것인가 ? 고통은 사람이 저 먼 바다에 던져 버리고 싶은 것으로 언제나 나와 동행한다. 이것이 현재이다. 미래에 이 고통이 멈추기를 바라지만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에 고통의 현재가 힘들지만 수용하고 그 고통을 즐기자. "다 헛되도다" 는 말은 삶의 허무가 아닌 현재 생에 대한 소중함을 상기시키는 말이다. 현재를 기뻐하자고 글을 쓰고 있는 나 자신 또한 고통의 현재이지만, 그래도 오늘이 있음에 감사하다. 오늘은 내일보다 소중하다.

학교 임야 , 포천 양수발전소 상부댐 건설지로 !

설립자가 1965 년부터 확보 ... 학교 재정에 도움 될 듯



▲ 이동면 도평리에 들어서게 될 양수발전소 구조도

우리대학이 소유하고 있는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산 399 번지 일대에 포천양수발전소 상부댐이 건설된다. 지난 14 일 한국수력원자력 (이하 , 한수원) 은 제 8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지로 경기도 포천시 , 충북 영동군 , 강원도 홍천군 등 3 개 지자체를 선정하였다고 발표했다. 한수원은 2031 년까지 포천시 이동면에 750MW(원자력발전소 1 기의 75%) 용량의 양수발전소를 완공시킬 예정이다. 공사비는 약 1 조원에 달한다.

한수원이 발표한 포천양수발전소는 하부댐과 상부댐으로 나뉘어 건설된다. 상부댐 예정지인 도평리 산 399 번지 (246,248 ㎡) 일대는 전체가 학교소유지다. 각흘산 해발 700 미터 산악의 계곡 좌우 7~8 부 능선사이를 가로질러 댐이 축조될 예정이다. 암반지대와 깊은 계곡이 잘 발달돼 하부댐에서 관로로 끌어올린 물을 저수하기는 최적지다. 댐 주변과 맞닿는 우리 소유의 산 401 번지 (1,073,752 ㎡), 402 번지 (95,008 ㎡) 일부도 수몰이 예상된다. 이곳은 학우들이 밀알훈련 산행 중 각흘 계곡을 따라 정상 (838 미터) 능선에 오르기 전 휴식을 갖는 근처이며 저고리골로도 불리고 있다. 그 중 양수발전소 용지로 쓰일 땅은 대략 30 여 만 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휘진 법인국장은 " 상당한 면적이 포천양수발전소 건립 용지로 수용된다. 한수원 측에 우리 학교의 입장이 잘 반영되는 전략안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 " 고 다짐하였다.

이곳 도평리 주변 일대는 학교 설립자인 일립 강태국 박사가 지난 1965 년부터 순차적으로 학교 수익용 땅으로 매입하였으며 황무한 산을 지난 30 여년간 선배 동문들과 함께 밀알훈련의 일환으로 식목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울창한 산림지로 변모시켰다.

정부는 설립자와 우리 대학의 산림녹화 공적을 인정하여 설립자는 대한민국 제 2 호 독림가 (篤林家) 상을 수상 (1974 년) 하였다.

* 양수발전소 : 심야에 남는 전력으로 하부댐에 저수되어 있는 물을 관로로 상부댐에 끌어올린 후 낙차를 이용해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수력발전소다. 강원도 양양과 전북 무주 등 7 곳에 양수발전소가 가동하고 있다.

一 粒 (일립) 강태국 박사 _ 21 주기 추도예배

우리대학 설립자 故 일립 강태국 박사 21 주기 추도예배가 오는 7 월 25 일 (목) 오전 11 시 본교 밀알관 로고스홀에서 거행합니다.

인본주의와 세속화 개념이 날로 더해지고 거룩한 주의 말씀마저 점점 위협받고 있는 위기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실천하며 주에 속한자의 삶을 일관되게 헌신해 온 일립 강태국 박사. 설립자의 참된 밀알정신을 통해 나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깨닫게 해 줄 귀한 만남의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시 : **2019 년 7 월 25 일 (목요일) 오전 11 시**
▲ 장소 : **한국성서대학교 로고스**홀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이사장 김창원**
한국성서대학교 **총 장 강우정**

"종의 신분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야"

한국성서선교회 목사 안수식 , 이승희 씨 등 6 명 안수

▲ 안수위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목사 안수에 임하고 있다 .

2019 년 한국성서선교회 (총회장 현희철 목사) 가 주최한 목사안수예배가 18 일 오전 11 시 중앙성서교회에서 거행되었다 . 현희철 목사가 '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엡 6:5~7) 로 말씀을 전했다 . " 우리는 종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해야 할 것이다 . 대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는 온몸이 다 닳도록 하나님께 헌신하였다 . 우리 인격이 주님을 닮고 주님께 속한자의 본분인 종의 신분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야 한다 . 한국성서선교회 설립자 일립 강태국 박사는 참된 종의 삶을 사셨다 . 형극의 길이지만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사역을 성실히 감당해 줄 것 " 을 강조했다 .

안수식에는 김영악 , 김진철 , 오종철 , 이승희 , 정명갑 , 허석 목사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소명자로 살 것을 하나님과 가족 친지 및 내빈 앞에서 엄숙히 다짐하였다 . 안수자 대표로 이승희 목사가 " 일립 정신의 가르침을 입고 소명자로 나서는 것에 자긍심을 갖는다 복음에 빚진 종의 모습으로 사역에 헌신하겠다 " 고 인사하였다 .

김재명 목사 (월계성서교회) 는 " 지배자가 아닌 지도자의 모습 " 을 , 오모세 목사 (태광성서교회) 가 " 진정한 종의 삶으로 사역해 달라 " 며 권면과 축사를 해 주었다 . 가족 친지와 지인 및 동문과 선후배 등 200 여명이 안수식에 참석하였다 .

본교 유진규 선교사 , 윌슨병으로 안타까움에 처해

재정적 도움 호소 , 14 년간 태국에서 왕성한 선교

▲ 유진규 선교사

본교 동문 유진규 선교사 (41 회) 가 희귀병인 윌슨병을 앓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 윌슨병이란 신체에 중금속인 구리가 필요 이상으로 축적되는 유전성 질환을 말한다 . 적정량을 넘어설 때 간과 신경질환에 이상을 보여 정상적인 거동자체가 불가능한 희귀병이다 .

유 선교사는 그동안 태국의 라후보족 마을에서 14 년간 헌신적인 선교활동으로 주의 나라 확장에 힘써 왔다 . 선교 성과는 나날이 쌓여갔다 . 그만큼 그의 열정도 확장되어 가던 중 4 년 전 하체와 근육에 이상이 온 걸 느낀다 . 강도는 더 심해졌다 . 급거 귀국 , 병원을 찾았지만 희귀병인 윌슨병 판정이 내려지고 만다 .

유 선교사는 " 주님 나라 확장에 헌신을 다해 왔다 . 육체의 질병으로 소명을 다하지 못해 안타깝다 " 며 간신히 말을 잇는다 . 투병생활 3 년째로 거동은 물론 일상생활 자체마저도 사모의 도움 없이는 꼼짝 못한다 . 재정여건이 이미 바닥을 보인지 오래라는 사모의 목소리도 무겁다 .

김성숙 사모는 끝까지 " 유 선교사를 돌봐주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할 것 " 이라고 말했다 . " 지금도 완치되면 선교지로 나가고 싶다 " 며 치유의 끈을 부여잡는 그의 병상에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임하길 기도한다 .

후원문의 : 한국성서대학교 대외협력실 전영호 950-5599

'남학생 통합휴게실'

기말고사 기간, 제 역할 톡톡히 수행

▲ 새롭게 문을 연 남학생 통합휴게실 내부 모습

지난 14 일 복음관 1 층 109 호실이 남학생 통합휴게실로 새롭게 단장됐다. 이곳은 얼마 전까지도 행정본부장실이었다.

휴게실의 내부는 출입문 오른쪽에 침대 1 면과 사생활을 고려한 커텐으로 안정감을 배려했다. 바닥은 난방용 전기 판넬을 깔아 방 전체가 은은한 따뜻함을 유지한다. 1, 3 인용 쇼파 배치와 시각적 안락함이 담긴 벽지, 빈티지 풍의 LED 조명 등도 조화롭다. 사무팀은 향후 소음 등을 차단해 줄 이중 창호와 심리 안정에 도움이 될 각종 소품 등의 배치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넓지 않고 아담한 공간의 남학생 통합휴게실은 이번 기말고사 때 문을 열었다. 한 학우는 "공간이 다소 좁은 건 아쉽지만 누울 곳이 있다는 자체가 전향적"이라며 환영을 나타냈다. 휴게실은 학생증을 인식시켜야 출입이 가능하다.

남학생 통합휴게실은 그간 총학과의 간담회에서 해마다 제기해 온 단골 민원이었다. 학교는 공간이 없어 고민하던 차에 김중완 행정본부장이 용단을 내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자신의 사무실을 내 놓아 남학생 통합휴게실이 조성 될 수 있었다.

제 2 차 교직원 연수,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제

"우애와 감사의 마음, 최상의 공동체 되자"

▲ 강화교산교회에 마련된 선교역사 자료

2019 학년도 제 2 차 교직원 연수회가 24~25 일까지 강화도에서 진행됐다. 연수회 주제는 '나로부터 시작되리'. 100 여명의 공동체 구성원이 참석했다.

연수예배에서 유정선 교목실장은 구성원 개개인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역할과 책임 완수에 노력해 왔다. 이것은 "성서공동체간 연합의식이 잘 발전된 결과"이다. "서로에게 우애와 감사의 마음으로 주께 영광 올리는 최상의 공동체 되자"고 설교하였다.

연수회 주제에 맞춰 먼저 기독교 유적지 탐방에 나섰다. 둘째 날, 설립 126 주년을 맞는 강화교산교회(1893 년 설립)를 방문, 설립 역사와 선교관 내부 등을 둘러봤다. 존스 선교사를 통해 강화에 생명의 첫 겨자씨가 심어진 과정은 드라마틱하였다. 복음화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위대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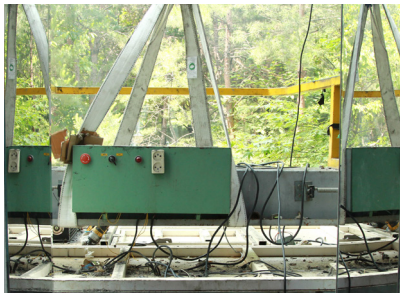
오후는 서울 합정동 양화진 외국인선교사 묘원을 찾았다. 1885 년부터 조선에 들어와 말씀 중심으로 의술, 교육, 사회개혁 활동을 펼치며 생명의 등불을 지펴준 선교사와 가족 145 명이 안장된 곳이다. 개화기 열악한 환경임에도 조선을 깨우려고 헌신한 모습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김경호(한국이엔지 경영교육협회) 이사장이 특강에서 '갈등'을 주제로 말 속에 담겨진 뜻의 다양성과 파급력을 소개하였다. 긍정과 희망의 언어사용이 창조와 생산성 향상 나아가 성공까지 불러온다며 배려와 사랑의 마음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서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 424 호)인 대한성공회 강화성당(설립 1893 년)을 찾았다. 전통 한옥 양식과 바실리카 형태가 조화된 교회 건축의 한 단면도 경험하였다.

엘리베이터 2 대 교체 작업 착수

2 학기 개학하기 전 완공 예정



▲ 복음관 승강기의 내부설비를 철거하고 있다.

여름 방학 시작과 함께 복음관과 갈멜관 엘리베이터 교체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루이엔지'는 지난 24 일 교체에 사용될 핵심 장비와 각종 자재류를 작업 현장 2 곳에 각각 입고시켰다.

승강기 교체작업은 7 월 첫 주 부터 2 개 작업팀이 동시에 투입돼 진행되고 있다. 기존 승강로와 기계실 철거작업을 시작으로 모터 조립과 제어반 설치, 출입구 교체와 전선 작업 등을 20 일까지 완료한다. 시운전 과정과 최종 검사까지 월말 안에 마무리 짓고 조율을 거쳐 개학 1 주일 전까지는 인수인계까지 마칠 예정이다.

'이루이엔지' 방동혁 소장은 "'OTIS' 엘리베이터의 안전성과 성능은 우수하다. 성서대학의 시설 교체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번에 설치되는 'OTIS' 사 엘리베이터는 기존과 동일한 15 인승, 1 분당 60 미터 속도이며 에어컨 가동으로 승용감은 훨씬 쾌적하다.

성서학과 MT, 가평 오이코스 펜션에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한 공동체다'

▲ 야외에서 바비큐파티를 즐기고 있는 학우들

성서학과 MT 가 25 일 ~26 일까지 경기도 가평군 오이코스펜션에서 '더 (The)' 성서학회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한 학기동안 학업에 진력해 온 서로를 격려하고 학과 공동체 의식으로 하나가 됨을 함께 확인해가는 자리이다.

개회예배 시작 후 1 학년부터 4 학년까지 서로를 알아가는 레크레이션으로 MT 의 막을 열었다. 낯설고 서먹한 관계에서 시간이 흐르자 웃음과 대화로 이어지며 기류는 뜨거워졌다. 더위를 씻어줄 물놀이에서 벽은 급격히 허물어졌고 맛깔난 바비큐 파티로 공동체간 끈끈함이 층층이 쌓여갔다. '교제시간' 조별 자기소개에서 수고와 아픔의 흔적들을 꺼냈다. 아픔은 나누어졌고 수고에는 감사와 격려가 더해지며 서로를 기도하고 보듬어주는 아름다움이 공간 안을 메워갔다.

박은지 학우 (성서 4) 는 "4 년의 과정을 통해 성숙해졌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때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순간 성장된 자신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옆에 있는 공동체를 붙잡고 나아가자"고 간증하였다. 성서학과 MT 는 재학생과 교수 등 75 명이 참석했다.

'2019 다함께 착착착 진로비전캠프'

"적극적인 자세와 계획, 취업문 능히 넘어설 것"

▲ 남이섬에서 비전캠프를 마치고 힘차게 환호하는 학우들

취창업지원센터 (센터장 박성범) 가 추진하는 '2019 다함께 착착착 진로비전캠프'가 27~28 일까지 본교와 남이섬에서 진행되었다. 취업 흐름을 살피고 자신에게 맞는 직업정보와 스킬을 통해 미래를 구상해보는 자리다.

첫 날 나의 성향 알아가는 MBTI 에서 신금주 과장 (학생생활상담센터) 이 파악된 유형에 따라 성향을 이해하고 재정립하는 시간을 인도해 주었다. 조별 직업 탐색전으로 다양한 직업세계와 직업정보 등을 민경은 컨설턴트가 안내하며 취업비전을 품게 하였다. 이튿날 문지예 컨설턴트의 이력서 작성코너, 장단점이 회사의 인재상과 연결되도록 정성 깃든 자소서와 이력서, 진로 계획의 중요성까지 총 망라해 주었다.

캠프에 참석한 한 학우는 "진로에 대해 친구들과 교감해보니 체감지수가 확 느껴졌다. 스스로를 냉정히 점검하는 자리였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번 행사를 총괄한 박성범 센터장은 "우리 학우들은 우수한 인성을 보유하고 있다. 적극적인 자세와 계획으로 임할 때 취업문은 능히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수 성서학과장도 현장에서 청년세대의 고민과 아픔을 경청하고 기도와 사랑으로 응원해 주었다. 50 여명의 학우가 캠프에 참석했다.

“좋은 소식 전하고 자신을 채워가는 방학”

1 학기 종강예배서 , 유정선 교목실장 설교

▲ 1 학기 종강예배에서 유정선 교목실장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

2019 학년도 1 학기 종강예배가 21 일 로고스홀에서 진행되었다. 유정선 교목실장이 ' 좋은 소식을 전하며 ' (사 52 장)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본문은 구원에 대한 좋은 소식으로 시작된다. " 깰지어다 깰지어다 ..." 소망이 없었던 이들에게 " 하나님은 헌신과 깨어남을 다한 모습을 접하고 힘과 용기로 위로해 준다. 정결을 다한 구원의 삶에 전능자가 감동하며 언약과 약속이 임하였다는 좋은 소식 " 을 말하고 있다. 주님은 " 죽음과 부활 , 승천을 통해 구원의 복된 소식임을 우리에게 입증해 줬다. ' 전도의 해 ' 를 맞아 좋은 소식 전하고 자신을 채워가는 방학이 되길 바란다 " 고 설교하였다.

권면에 나선 강우정 총장은 지난 해 하나님이 베풀어 준 두 가지 은혜가 있다. 하나는 자율개선대학이 되어 혁신사업을 펼쳐가도록 허락하신 것과 둘은 매일 채플에서 ' 기도쪽지 ' 로 함께 기도해 온지 14 년이 된 것이다. 이 기도쪽지를 통해 우리 대학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 한 가족이 되었고 기도를 통해 어려움을 이겨 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은 "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학 , 사람도 흠모하는 대학 " 으로 든든해져 가고 있음을 감사하는 것이다. 그는 이어 " 성경읽기에는 방학이 없다. 하루 3 혹은 4 장씩 읽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라 " 고 당부하였다.

김대진 총학회장은 한 학기동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No 지각 , No 결석 – 확실한 개근자 8 명

“여러분은 위대하다” BRC 종강설교 김승호 교수

▲ 종강예배를 다 끝마친 참석자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2019 학년도 1 학기 성서학과 BRC 종강예배가 14 일 갈멜관 305 호에서 진행됐다. A 반의 김승호 교수가 ' 하나님의 열망 '(시 41 편) 으로 말씀을 전하였다.

" 다윗은 큰 환란에 처할 때마다 주를 찬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줬다. 어렵고 힘든 15 주간을 말씀에 순종해 온 여러분 모두는 위대하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에 능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성경이 내면에 충만할 때 존경과 사랑의 인생 될 것이며 BRC 가 그 출발점이다. 삶의 전환점을 견고히 붙잡고 나와 주변을 섬기는 성서공동체가 되어 달라 " 고 당부했다.

이번 1 학기는 A 반과 B 반 클래스에 각 35 명씩 전체 70 명이 참여했다. 선배 14 명이 도우미 역할로 나서서 후배들의 수업과 학교정착에 큰 도움을 줬다. 선배들은 단체방을 개설하고 신학기 적응에 필요한 학사 정보로 격려하며 15 주간을 함께 걸어왔다. 권산 (성서 3) 학우는 강원도 원주에서 새벽 4 시에 일어나 기차로 통학하며 후배 사랑의 열정을 보여주었다. 허우림 학우는 "BRC 가 나를 아침형 인간으로 변화시켜줬다. 내 인생의 참된 출발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선배와 동료 모두가 감사하다 " 고 말했다.

이번 수업에 A 반 3 명 (박요한 , 추요셉 , 최현우) 과 B 반의 5 명 (이현균 , 문건희 , 함진서 , 황예영 , 최종혁) 은 단 한 번의 결석 , 지각도 없는 확실한 개근자로 1 학기 BRC 과정을 완주하였다.

도우미로 헌신한 14 명은 다음과 같다.

▲ **A 반** (김승호 교수) : 이해렬 (성서 4), 표하늘 (성서 3), 윤자희 (성서 3), 이성민 (성서 3), 천강후다윗 (성서 2), 이동규 (성서 2), 안민혜 (성서 2)

▲ **B 반** (김현광 교수) : 이정혁 (성서 4), 이나현 (성서 3), 송유진 (성서 3), 김채현 (성서 3), 권산 (성서 3), 백민석 (성서 2), 김진왕 (성서 2)

전도서가 성도에게 주는 교훈은 ?

대학원 '제 5 회 성경주해 세미나'

▲ 김정원 교수가 '제 5 회 성경주해 세미나' 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대학원이 주최하는 '제 5 회 성경주해 세미나' 가 10 일 로고스홀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전도서 주해와 설교' 였으며 김정원 교수와 김남준 (열린교회) 목사, 류호준 (백석대 대학원) 교수가 세미나를 이끌었다.

▲ 김정원 교수 ' 코헬렛의 고뇌와 그가 찾은 지혜 '

전도서는 삶의 방향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올바른 삶의 지혜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책이다.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무익하고 허무하다. 부정과 덧없음이 가득한 헤벨적 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람의 인생은 너무 빠르다. 참된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삶을 통해 부정의 일소와 의식 전환에 의한 즐거움과 행복을 찾게 하였다. 코헬렛의 삶은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이다. 그에게 돌아가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몫을 누리고 긍정적인 의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 김남준 목사 ' 불망의 감화력 ' (전 12:9~11)

설교자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이다. 성경전체에 대한 풍부한 지식은 당연하다. 나아가 본문에서 중심 단어 찾기를 통해 언어적 의미와 신학적 의미 파악을 완결해야 한다. 그 이후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와 이를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것이 전제된 후 설교메시지는 논리적 색채로 연결되고 삶의 현실에까지 적용된다. 이 과정을 견고히 이뤄가는 작업이 반복될 때 영혼의 깊은 곳을 울려주는 진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 류호준교수 ' 인생에 대하여 알아야 할 세 가지 ' (전 12:13~14)

전도서는 길과 지혜를 가르치며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인생의 방법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다. 이를 위한 세 가지로 '헤벨' 은 삶은 마치 짧은 호흡처럼 한순간의 헛됨이라고 말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 앞에 놓인 유한한 인생임을 기억하라며 메멘토 모리를 상기시켜줬다. 남아 있는 소중한 날을 붙잡고 헛되이 사용치 않는 카르페 디엠도 말하였다. 인간은 절대자인 하나님 안에 속해야 한다. 매 순간 주어지는 삶이 주의 선물임을 인정하고 잘 누리는 것이 큰 분복이라고 강조했다.

'LO.CO' 공모전 , 노원누림 등 9 개 팀 선정

대학의 사회적 책무로
임팩트 창출에 공헌을

▲ 공모전 9 개 당선팀이 시상식을 마친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대학혁신사업단에서 재학생 대상으로 진행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아이디어 공모전 '(Local Community Project : LO.CO) 당선팀을 발표하였다.

당선팀은 김동완, 박소영 학우 (컴소) 가 제안한 '노원누림' 프로그램과 조민정 외 3 명의 '우리는 숲정이' 등 9 개 팀이 선정되었다. 수상식은 21 일 복음관 회의실에서 김은호 부총장이 당선팀에게 상장과 20 만마일리지를 시상하며 축하해 주었다. 'LO.CO' 에 공모한 'Love & act' 등 4 개 팀전원에게도 참가상이 지급 (5 만 마일리지) 됐다.

이번 공모전은 대학의 사회적 책무 수행과 학문적 특성을 연계시켜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임펙트 창출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당선팀은 협력교수를 선정 후 지역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수퍼바이저를 섭외하는 과정을 거친다. 선정된 9 개 팀에게 장학금 1 백만원씩과 별도의 사업수행비 (팀당 최대 5 백만원) 도 지급될 예정이다.

중앙성서교회 5 백만 원 헌금

엘리베이터 교체사업에

중앙성서교회 현희철 목사와 성도들이 대학의 승강기 시설 교체에 필요한 후원금 5 백만 원을 전해 왔다.

현희철 담임목사는 "우리교회와 성서대학은 일립 강태국 박사의 주의 나라 확장에 따라 설립된 특별한 동반자 관계이다. 성도들은 앞으로도 학교가 복음전도자 양성 목적을 적극 실천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원을 다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성서교회는 지난 1956 년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모든 성도들이 학교가 한반도 복음화의 귀한 사명에 힘써 달라는 성스러운 기도의 등불을 단 하루도 꺼뜨리지 않고 지속해 왔다. 이번 후원도 시설개선에 필요한 엘리베이터 교체 헌금일 (5 월 12 일) 을 별도로 정할만큼 성도들의 사랑과 정성이 각별했다.

산곡동 교회 , 발전기금 1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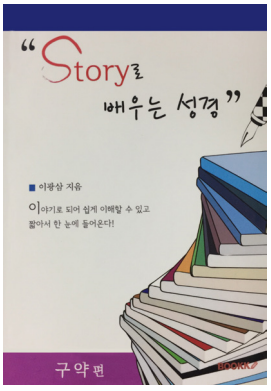
"우리 생각과 마음을 움직였다"

남양주 별내면 산곡동 교회 신부식 목사가 학교 발전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1 백만 원을 후원하였다. 신 목사는 "평소에도 우리대학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다. 넉넉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린다"고 말했다.

산곡동 교회는 지극히 작은 교회다. 작년 여름철, 남양주에 쏟아진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당하였다. 근처 하천물이 불어나 지하 예배당을 덮친 것이다. 성도 대부분이 고령자여서 복구도 쉽지 않았다. 안타까움을 접한 대외협력실에서 이 사실을 CBS 에 전하고 도움을 호소하였다. 귀한 응답이 이어졌고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를 더 뜨겁게 찬양할 수 있었다.

교목실 이광삼 목사

「스토리 (Story) 로 배우는 성경 – 구약편」 발간



이광삼 (신앙훈련과 과장) 목사가 「스토리 (Story) 로 배우는 성경 – 구약편」 을 출간하였다. 성경을 쉽고 친근하게 배우도록 안내해 주는 책으로 신앙 초보자들에게 안성맞춤이다. 책은 쉬운 용어 선택과 핵심을 꿰뚫는 스토리 전개 방식으로 전체 이미지에서 개별 사건과의 접근을 흥미롭게 잇는다.

성경의 구분과 유래, 저자의 기록배경 등을 시작으로 출애굽과 광야 및 통일왕국 등의 장쾌한 서사가 거침없다. 창공에서 숲을 둘러본 후 그 안에 서 있는 나무와 꽃을 살펴 경외케 하는 형태이다. 서술 과정에서도 주인공인 성경말씀을 핵심과 맞닿는 치밀함이 번득인다. 보고 듣고 가르치는 현장에서 말씀의 운동력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간절히 염원한다고 고백하였다.

「스토리 (Story) 로 배우는 성경 – 구약편」 이광삼 . 부크크 . 220P. 15,600 원

총장의 편지
총장 강우정

동문 여러분께

지난 7 월 4 일 금요일에 동문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회장으로 수고하시던 김희태 목사님 (26 회) 이 물러나시고 이성화 목사님 (28 회 , 부천서문교회 담임) 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동문회 총회와 그에 앞서 드린 예배에 참석하면서 저는 성서대학 동문들이야 말로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나라의 교회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내 몰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남겨 두셨습니다. 설립자가 눈물을 흘리며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오는 25 일 설립자의 21 주기 추모예배를 갖습니다. 한국성서대학은 동문여러분이 설립자에게 받으셨던 모든 신앙훈련과 교육을 원형 그대로 학우들에게 전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동문 여러분께 3 가지 도움을 청합니다.

첫째 , 성서대학의 정체성의 확립과 유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학뿐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신학대학과 기독교대학들은 이 문제 (정체성의 확립과 유지) 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양대학교 , 한동대학교 , 숭실대학교 등이 있지요 .

둘째는 신학과 (성서학과) 를 지원하는 학생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역 담임 목사님들이 내일의 교회를 진정 걱정하신다면 교회 청년 중에 1 년에 1 명씩은 신학을 지망하도록 교육해 주시고 보내 주어야 합니다.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오늘 사람을 키우지 않으면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 사람을 보내 주십시오 .

셋째는 한국성서대학의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대학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율개선대학이 되어 나라의 재정지원 (1 년에 15 억씩 3 년) 을 받게 되었습니다만 이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이고 소액 후원자가 많아야 성서대학이 안정적으로 운영 될 수 있습니다 .

동문회의 새 리더그룹이 등장하였습니다. 동문 모두가 하나가 되어 새 리더십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이성화 회장 목사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직원 컬럼
안미란 직원(법인사무국)

고난의 시련

초목이 짙은 어느 무더운 여름날 , 고산지대 한 목장에서 내 생애 가장 인상 깊은 나무와 마주한 적이 있다 .

보통 나무가 훌륭하다고 하면 깊은 숲속에서 굵고 높고 곧게 자라 그 풍채를 자랑할 만큼 높이 솟아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 하지만 나와 마주한 그 나무는 높지도 굵지도 더욱이 곧지도 않았다 .

높은 산 꼭대기에 주변 나무와 떨어져 홀로 혹독한 고산지대의 거센 바람과 비와 구름의 흔적을 온몸에 담고 있었다 . 더 크지도 몸을 넓히지도 못했던 나무가 얼마나 고된 시련의 시간을 보내왔는지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설명이 충분했다 . 심지어 가지와 잎을 기후의 흐름에 맞추고 방향을 돌려내어 휘어진 몸과 뒤틀린 가지들이 신비한 모습을 하고 춤추듯 노래하듯 자신이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

그 나무는 예술가였다 . 고통의 시련을 온 몸에 담아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한 살아있는 작품이다 . 그가 말했다 . 나는 살아있고 내 자태는 아름다워서 나의 고난이 나에게 의미하는 것은 고통이 삶에 대해서 진정 아름다운 것을 알게 해준다는 것을 나에게 말해주었다 .

울창하고 풍요로운 숲속에서 자란 나무처럼 기름진 삶을 살지 못할 지라도 비교하여 훌륭하다 평을 받지 못할 지라도 그 나무는 충분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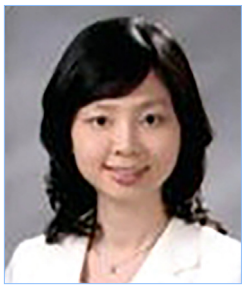
십자가의 도는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것 같아서 보편적 가치 기준이 다른 어려운 길이다 . 하나님의 예술적 감각이 우리에게 시련으로 다가올 지라도 기꺼이 기뻐하며 가치 있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교수 컬럼
박성환 교수(성서학과)

핫팬츠만 입으려는 딸과 못마땅한 아빠

얼마 전, 신문에 "핫팬츠만 입고 다니는 만 10 세의 딸이 못마땅한 아빠의 특단 조치"라는 기사가 실렸다. 플로리다의 올랜도에 사는 제이슨 힐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딸인 캔들이 어떻게 핫팬츠만 입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는지, 당시의 상황을 영상으로 공유했다. 이 영상은 아빠가 막내 아들과 함께 "켄들, 우리 얘기 좀 하자"며 웃으면서 딸의 방으로 들어가는 아빠의 모습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아빠의 모습을 본 딸은 당황해서 자신의 눈을 감는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빠가 아주 짧은 핫팬츠를 입고 앞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때, 아빠는 딸에게 마치 친구에게 농담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한다. "이제 학교로 널 마중 갈 때, 난 이걸 입고 갈 거야!"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딸은 그만 웃고 만다. 이런 모습이 담긴 영상은 공개 직후, 딸을 향한 아빠의 유머 섞인 설득 방법을 칭찬하는 댓글이 가득 올라왔다. 어떤 네티즌은 핫팬츠를 입은 아빠를 "올해 최고의 아빠"로 선정해야 한다고 치켜 세웠다.

지금, 나도 이 신문 기사의 내용처럼, 아빠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왜냐하면 중학교 1 학년인 큰 딸, 그것도 핫팬츠만 입는 사춘기의 딸을 언제나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아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이슨 힐리와 나는 다른 것이 있었다. 제이슨 힐리는 핫팬츠를 입는 딸에게 자신의 생각을 소통할 때, '과정'을 중시했다. 그러나 나는 큰 딸과 소통 할 때에, 과정이 아닌 '관철'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왜냐하면 내가 "핫팬츠는 너무 짧으니까 다른 거 입어"라고 큰 딸에게 말하면, 이 아이는 내게 "싫어, 다른 친구들은 나보다 더 짧은 거 입고 다녀"라며 대답할 때에, 내 마음 속에 알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올라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핫팬츠를 입은 제이슨 힐리를 보면서, 사춘기의 딸과 소통의 '과정'을 어떻게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 혜안을 얻을 수 있었다. 물론, 핫팬츠를 입고 딸 앞에 나설 용기는 전혀 없다. 그러나 나는 '꼰대 아빠'가 아닌, '멘토 아빠'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다.



외래교수 컬럼
임은령 교수(보육교사론)

신(神)의 한 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판단)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욥기 23 장 10 절)

아이들을 좋아하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며 유아교육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공을 결정할 때 유아교육 관련학과에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은 확고하였습니다. 유아교육 관련학과가 있는 대학을 찾아보던 중 '한국성서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를 알게 되었고 원서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합격한 저는 1999 년 신입생으로 입학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성서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로 보내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졸업한 지 16 년이 지난 지금 저를 '한국성서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로 보내신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神)의 한 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국성서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를 졸업하였기 때문에 전공과 관련된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보육전문요원, 외래교수 등의 일을 할 수 있었고 나아가서는 영유치부 전문사역자로서 교육전도사로 사역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성서대학교에서 배운 신앙과 지식을 가지고 나아가 세상과 사역의 현장을 아우르는 영유아 전문가로 성장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특권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후배님들도 저와 같이 '왜 하나님께서 한국성서대학교로 보내셨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후배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한국성서대학교로 부르신 것은 후배님들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神)의 한 수'라는 것입니다. '신(神)의 한 수'를 통해 선택받아 한국성서대학교에 들어 온 후배님들 모두 학교에서 배운 신앙과 지식을 가지고 각자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최정권 목사 컬럼

성서대학교회 담임

잘 다녀 왔습니다

스페인에서 진행된 '유럽 선교사 대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 오후에 출발, 11 시간 30 분을 날아서 바로셀로나 공항에 도착 후 다시 다음 비행기를 3 시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3 부 예배 찬양팀이 교인들과 부른 떼창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녹음을 보내줘서 들었습니다. 이어폰 선으로 들려오는 가사 한 절 한 절이 낯선 외국 공항에 있는 저희의 영혼을 은혜의 물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말라가행 비행기를 타고 새벽에 도착해 짐을 푼 후 그 날 새벽기도부터 주어진 일정을 마치고 다시 똑같은 경로를 거쳐 토요일 밤에 교회로 도착했습니다. 어디 박스 안에 갇혔다가 나온 느낌으로 어린이 주일을 보냈습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걷는다는 말을 체험하면서…

이번 '유럽 선교사 대회'에서 얻은 은혜를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정주'입니다. '정주'의 뜻은 주어진 자리에서 오래 있는 것으로 제가 만난 선교사님들은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신 분들입니다. 젊은 선교사님들은 작게는 7 년에서 10 년, 연세 드신 선교사님들은 37 년, 40 년 가까운 세월을 그 나라에서 보낸 분들입니다. 한 자리에서 목회하다가 은퇴하는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능력도 없고, 오라는 데가 없어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있었습니다"라는 겸양의 말을 듣는데 외국에서 오랜 시간 보낸 그분들 모습에서 정주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둘째는 '외로움'입니다. 선교대회가 올해로 26 주년인데 이 긴 세월을 한 결 같이 유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분들의 외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면서 느끼는 외로움이란? 살아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감정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미국보다 유럽은 더 깊은 외로움이 자리하는 곳입니다. 좀 더 건조하다고 할까요? 중동권이 가까워 모슬람권에서 사역중인 선교사 여러분이 참여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영적 전쟁 중 겪은 외로움에서 다시 용기와 위로를 충전하는 곳이 이 선교대회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공감'입니다. 강사 목사님 한 분이 자신이 겪는 공황장애를 고백했고, 여러 선교사님들도 자신이 겪었던 공황장애를 그분과 나누는 걸 보았습니다. "저도 그 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내도 저를 이해 못 했고, 저도 이런 병에 걸릴 줄 몰랐습니다." 치유의 첫걸음은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공감이…

넷째는 '본향'입니다. 공항에서 교회로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아 "하나님, 무사히 돌아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주어진 인생을 다 마치고 본향에 돌아가는 제 모습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이곳저곳 다니다가 돌아올 때면 저절로 나오는 고백 "그래 집이 제일이야?" 그 집이 중계동만은 아닐 겁니다. 여행을 하면 할수록, 이 세상을 살면 살수록,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임경미의 토닥토닥 시 60

그리움은 돌아갈 자리가 없다 _ 천양희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면서
나는 그만 그 산 넘어버렸지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면서
나는 그만 그 강 건너갔지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면서
나는 그만 그 집까지 갔지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면서
그땐 그걸 위해 다른 것 버렸지요
그땐 슬픔도 힘이 되었지요
그 시간은 저 혼자 가버렸지요
그리움은 돌아갈 자리가 없었지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면서 그만 산을 넘고 그만 강을 건너고 어느새 여기까지 와 있네요. 여기까지 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겼을까요? 때론 기쁨보다 슬픔이 살아갈 힘이 되기도 했었죠.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면서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는 이게 맞는데 이게 맞는데 앞으로 나아가야겠지요. 마음의 굳은살도 단단해졌으니 뒤돌아보지도 말고 아파하지도 말고 오늘을 살아가야겠지요. 그리움의 자리는 언제나 오늘, 바로 이 순간이기에…

대학어린이집

▲ 아들이 팀을 나누어 신체게임을 하고 있다.

'친구야 같이 놀자'

대학어린이집은 지난 3 일부터 25 일까지 4 주 동안 만 3–5 세 유아들과 함께 장애 이해 활동으로 '친구야 같이 놀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통합유아의 사회성 증진과 일반유아의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놀이 과정을 통해 서로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성장시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은 같은 반에서 생활하는 일반유아와 통합유아가 소그룹으로 참여했다. 통합유아 학부모의 진행에 따라 협동하며 공 옮기기, 술래잡기, 손잡고 산책하기 등 신체활동을 경험하였다.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아가고 함께 대화로 놀고 즐기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었다.

참여한 학부모는 " 서로를 배려한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또래와 사귀는 것의 중요성도 알게 해줬다 " 며 감사함을 나타냈다. [**감사반 민주이 교사**]

월계종합사회복지관

▲ 후원금 전달식을 마치고 기관장들이 손하트를 날리고 있다.

꿈을 주는 과일사업 후원금 전달식

월계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5 월 31 일 노원구 ' 꿈을 주는 과일사업 '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사업은 노원구 내 저소득층 (77 가정) 아동, 청소년에게 신선한 제철과일을 지원하는 취지의 네트워크 사업이다. KB 금융그룹이 후원하며 월계종합사회복지관을 대표 기관으로 노원구 관내 7 개 (공릉복지관, 노원 1, 마들, 북부, 중계, 하계, 서울시립북부장애인 복지관) 이 동참하게 된다. '꿈을 주는 과일사업' 은, 꿈을주는과일재단 (이사장 황의준) 이 주최해 6 년째를 맞고 있는데 수요자들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과일 뿐만 아니라 도서지원, 글짓기 그림대회 개최, 가족나들이 등 가족과의 친밀감을 더해 미래 세대의 주역으로 성장되도록 지원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지역사회조직팀 / 임재택 사회복지사**]

꿈빛어린이집

▲ 학부모와 자녀가 나만의 악기를 그림으로 꾸미고 있다.

'소리축제'

지난 15 일 가족의 날 행사로 학부모가 참여하는 ' 소리축제 ' 를 진행하였다. 제시된 소리에서 문제를 맞추는 ' 소리골든벨방 ' 과 자신만의 악기를 꾸며보는 ' 찰찰찰 탬버린 / 캐스터네츠방 ' 이 관심을 끌었다. 파이프 악기, 붐웨이커, 연주하는 파이프, 발 피아노 등의 악기 체험과 ' 악기연주방 ' 과 냅킨아트로 예쁜 마라카스를 꾸며보는 ' 만들기방 ' 도 인기코너가 됐다. 맛있는 간식으로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간식방 등의 코너도 오감을 만족케 준 시간이 되었다. 그 중에 ' 소리골든벨 ' 에 관심이 높았는데, 한 학부모가 당연히 여겼던 것의 소중함을 느껴볼 시간이었다고 말씀하셨다. 만든 악기를 이용하여 합주를 해보는 시간도 호평을 받았다. 학부모들은 동심으로 돌아가 소리로 하나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고 말하였다. [**민들레반 호한나 교사**]

성서대학교회

▲ 교사헌신예배에 참석한 교사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있다.

교회학교 교사 헌신예배

교회학교가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16 일 주일오후 ' 교회학교 교사 헌신예배 ' 를 진행하였다. 이날은 모든 교사가 무대에서 율동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함을 올려 드렸다. 이날 박종걸 목사 (경성교회 담임) 가 ' 참 좋은 선생님 ...' 이 (약 3:1~2, 빌 2:5) 제목으로 도전과 결단의 말씀을 전해주었는데 교사들은 소명의식과 헌신을 가슴에 새겼다.

선교사역위원회는 최정권 담임목사가 주강사로 참여하는 ' 캄보디아 선교대회 (24 일 ~29 일)' 에 성도 10 명을 파송시켰다. 6 차례 선교사파견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23 일 주일 오후 예배시간에 단기파송식도 가졌다. 참석자들은 4 박 6 일간의 선교대회에 참가해서 주어진 사명과 섬김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은혜롭게 귀국하였다. [**서 욱 목사**]

상계백병원어린이집

▲ 축구리그에 참가한 유아들이 대회홍보부스에서 포즈를 취했다.

노원구 유소년 축구리그전

지난 14 일 상계백병원어린이집 [만 3~4 세] 푸른반은 노원구체육회에서 주관한 2019 노원구 유소년 축구리그에 참여하였다. 알찬 리그를 준비하며 아빠 감독과 4 회기 축구교실을 가져 아빠와 친밀감을 높이고 운동의 즐거움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었다.

축구리그전에서는 개회식과 함께 에어바운스 슬라이드 수영장, 비눗방울체험, 스티커 타투 등 이벤트 부스와 리그가 펼쳐졌는데 2 번의 축구경기에서 공동체 의식과 스포츠가 주는 즐거움을 맛보았다. 리그를 마치며 경기 영상과 사진을 본 학부모들은 " 이렇게까지 잘하는지 몰랐고 최고였다.", " 형님들 너무 멋있어요." 라며 놀라움을 표현해줬다. 감독으로 이끌어 준 학부모는 " 경기는 졌지만 아이들이 기특하고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웠어요 ~" 라고 소감을 이야기 하였다. [**푸른반 이예은 교사**]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 유아들이 아빠의 배 위에 올라앉아서 신체놀이를 즐기고 있다.

아빠와 함께 즐거운 신체놀이 !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 대상으로 '아이조아 아빠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아버지의 역할을 정립하고 양육과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자녀와 함께 하는 신체놀이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6 월 8 일 (토) 에는 2 회기로 나눠 진행되었고 15 가정의 아버지와 자녀가 참가했다. 다양한 소도구 (빌리보, 풍선, 에어바운스) 가 동원되었으며 몸 전체를 부딪치고 협력하며 배려해주는 행복한 모습에서 신명이 넘쳤다. 한 아버지는 "양육정보도 좋았고 자녀와 신체놀이로 긍정적인 애착관계 및 친밀감을 형성케 해 준 값진 시간" 이다며 고마움을 나타냈다.

추후에도 아이조아 아빠교실이 진행할 예정이며, 신청은 본 센터 홈페이지 '교육 및 행사'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보육전문요원 이주애**]

상계5동어린이집

▲ 행복한 바자회를 잘 마치고 유아들과 선생님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온누리반 , '행복한 바자회'

지난 24 일 만 5 세 온누리반이 주최하는 바자회가 열렸다. 바자회 장소는 상계 5 동주민센터가 제공해 주었고 영유아들 가정에서 물품을 기증받아 진행되었다. 바자회는 장난감과 옷, 생필품과 함께 소떡소떡, 팝콘, 아이스크림, 유아들이 직접 만든 석고방향제와 팔찌 등이 판매되었다. '행복한 바자회' 는 영유아들과 지역민이 물품을 접하는 과정에서 감사와 기쁨 그리고 배려의 정신을 배우도록 한다. 어린이집 행사를 넘어 상계 5 동 지역 주민들과 어울릴 현장체험의 귀한 시간이다.

유아들은 직접 물건이 오가는 바자회를 통해 성취감과 나아가 지역사회 한 구성원임을 확인시켜주는 유의미한 자리가 됐다. 앞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온누리반 강혜진 교사**]

늘사랑어린이집

▲ 부모의 문화 재충전으로 어린이집에서 놀이에 열중하는 아이들

HAPPY MOVIE DAY

지난 20 일 학부모의 양육스트레스 해소 및 재충전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 해피 무비데이 ' 를 운영하였다. 무비데이는 부모님들께 저녁 시간 영화를 관람하도록 어린이집 내에서 영유아를 보육해주는 행사이다. 바쁜 일과로 학부모가 문화생활을 즐기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이었다. 참여한 학부모들은 늦은 저녁시간까지 영화를 관람하며 힐링의 시간을 보냈고 이에 맞춰 어린이집은 맡겨진 자녀를 정성과 사랑으로 돌보아 줬다.

행사에 참여 한 부모들은 " 부모들의 문화 활성화를 통해 힐링 데이를 즐길 수 있어 감사했다. 아이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잠시나마 행복한 시간을 만끽하였다 " 며 돌봐 준 어린이집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학부모가 행복하도록 행사를 적극 개발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즐거운반 윤영숙 교사**]

충무어린이집

▲ 디키디키 실내놀이터에서 테마별 오감체험을 즐기고 있다.

디키디키 실내 놀이터

지난 19 일 동대문에 위치한 디키디키 실내놀이터로 체험활동을 다녀왔다. 이번 체험은 아이들에게 창의적 디자인 마인드를 경험케 하는 목적을 가지고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자연과의 조화로움을 응용한 5 개의 숲속 테마환경과 3 개의 오감체험 프로그램이 운용됐다. 코너는 숲속 정글언덕, 숲속 파레트 늪, 숲속 과자집과 숲속 옹달샘 그리고 숲속 동굴이 주제를 잘 살리는 색상과 조형물 등으로 꾸며져 몰입도를 높여주었다.

이밖에 창작스튜디오, 상상그루터기, 상상오두막이 오감체험활동과 다양한 디자인 예술 감각을 키워줄 창의적 공간의 역할을 해주었다. 이번 체험이 문화, 예술, 산업 전반의 디자인 마인드를 놀이와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로그 컨셉의 건강한 놀이문화를 마음껏 즐기는 시간이 됐다. [**강예은 교사**]

www.bible.ac.kr

「성서대학돕기운동」 기부현황

KBU와 함께 꿈꾸는 복음의 내일, 성서대학돕기 운동이 복음을 심습니다!

- 기부기간 2019년 5월 21일부터 2019년 6월 20일까지 신규약정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국내기부 국민은행 835-01-0178-931 예금주 한국성서대학교 / 하나은행 123-910004-14705 한국복음주의학원
- 국외기부 PayPal : kbiblefunds@gmail.com / Mail Check : Payable to Korean Bible Funds _ 646 Eliska Ct. Walnut Creek, CA 94598
  Wire Transfer : Wells Fargo Bank _ Korean bible Funds _ Account No. : 384 048 3592 _ Routing No. : 121 000 248
- 접 수 처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_ 한국성서대학교 대외협력실(복음관3층) _ Tel. 02.950.5599 Fax. 070.4275.0161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故강덕희(텍사스대학 교수)	36,000달러(운영)
강우정.강진(총장)	1,537만원(운영)
이인영(한국어교육원 부원장)	1,000만원(운영)
성서대학교회(최정권 목사)	680만원(운영)
이인경(충무어린이집 원장)	510만원(운영)
중앙성서교회(현희철 목사)	500만원(운영)
강혜정	2,000달러(운영)
한국장학재단	150만원(장학)
송순덕(학부모)	101만원(운영&장학)
교수부	100만원(장학)
도서출판현문사	100만원(간호발전)
이례장학(민용기 원장)	100만원(장학)
정진애(사회복지대학원 교수)	100만원(장학)
홍설자(이사)	100만원(운영)

약정자 명단

동문 및 가족

1구좌 금동옥 김믿음 김태용 류요한 박영근 박지영 배창경 송향숙 신은혜 안현정 유미정 유보아 윤지준 이용원 이정훈 이지은 이환기 임삼일 장두성 정다연 정다운 차현정 한경순 허영숙 홍정심

1.7구좌 최민영

2구좌 김미나 김성훈 김지혜 소경숙 정은혜 정인철 최호정 황보혜영

3구좌 명은원 문지원 이진우

4구좌 최아란

5구좌 길소윤 김연진 김주원 김준오 김지원 김혜선 문수빈 신다인 엄조은 오민지 정예나 채수현 홍현숙

8.3구좌 송순덕

재학생 및 가족

10구좌 이상학

교직원 및 가족

1구좌 정보미

5구좌 장정순

6구좌 방진희

10구좌 원영희

12구좌 김웅기

20구좌 정해덕

부설기관

1구좌 김옥준 문유나

4구좌 박미선

서문교회

1.5구좌 정찬수

중앙성서교회

1구좌 김재혁

퇴계원제일교회

2.4구좌 유숙자

일 반

1구좌 김미라 이현수 진윤승 최은실

2구좌 김윤숙 최지연

기부자 명단

동문 및 가족

5천원 강동란 김시내 민이삭 이아람 무 명

1만원 강상미 강순성 강신용 강영규 강영주 강은아 강재현 강정민 강정애 강주옥 강춘자 강현미 고성호 고정균 곽미화 구본길 구본철 구세경 권명순 권슬기 권유철 권정인 권 준 권희조 금동옥 김가영 김가희 김경수 김경혜 김다솔 김도훈 김동현 김두환 김명희 김무엘 김민겸 김민정 김믿음 김병렬 김보희 김선식 김성균 김성애 김세현 김소영 김순화 김승훈 김승희 김유미 김유진 김은경 김은석 김은천 김응환 김일준 김재한 김정례 김지선 김진영 김진하 김차욱 김춘덕 김태용 김필녀 김하은 김한나 김현정 김현진 김혜영 김효래 나선영 나혜수 남경숙 남범수 남상숙 남성휘 노명민 노한나 류수진 류요한 류희정 마효정 맹현진 문기철 문성령 문수란 문홍철 민정은 박경수 박경옥 박명우 박문홍 박상수 박성준 박수진 박순임 박아론 박영근 박영자 박용준 박윤복 박은선 박은지 박재신 박재윤 박종주 박주옥 박지영 박지영 박창대 박창민 박철교 박향식 박형택 박혜인 반해빈 반해성 방지연 배민정 배은휘 배혜인 배효순 백명희 백연주 백은진 백해송 백향목 변지윤 서규원 서미희 서유미 서정민 서지혜 서 현 서희영 성순애 성한나 손명배 손영화 손윤숙 손주현 손진규 손혜진 손화진 송명훈 송민규 송성은 송영자 송유지 송향숙 신경자 신대민 신미선 신은혜 신종수 신태양 신혜영 심두한 심순자 심인자 심희남 안현정 양은숙 엄보라 엄보영 여지은 오세천 오은희 오채엽 왕지희 용아름 우승연 유미정 유소담 유양숙 유영진 유지영 윤솔이 윤영원 윤예서 윤정숙 윤지준 윤혜자 이경선 이광석 이근중 이도훈 이두현 이만수 이명호 이미정 이민우 이민화 이병주 이병현 이상용 이상준 이상필 이석호 이수경 이수진 이신재 이아름 이영광 이영식 이용철 이윤정 이윤주 이은실 이은실 이정숙 이정숙 이정훈 이지은 이진경 이진리 이창호 이채녀 이철승 이학준 이현무 이현섭 이현지 이혜윤 이화연 이희윤 인지혜 임남연 임삼일 임은성 임은진 임찬웅 임창열 장두성 장세진 장순호 장윤국 전다현 전미영 전병준 전상호 전아름 전아영 전예지 전한나 정금숙 정다운 정선도 정성희 정연오 정영교 정영용 정인철 정지현 정지영 정혜문 조경애 조믿음 조소연 조승희 조영희 조용희 조은경 조은별 조은화 조인순 조장현 조태환 주민자 주성현 주영덕 지영환 차현정 채유신 채종원 최규봉 최서희 최선경 최승주 최승진 최아란 최예본 최예슬 최종운 최준혜 최진희 최혜림 탁국현 탁명화 하수현 하진우 한경순 한상장 한원창 한정은 허영숙 허주옥 홍금주 홍선호 홍성대 홍애진 홍자영 홍정심 황선명 황형록 설에스더 신에스더

1만5천원 이예람

2만원 고난홍 구연민 국소영 김기옥 김명희 김미숙 김미향 김민욱 김복녀 김샛별 김성훈 김순녀 김순덕 김승용 김연정 김영주 김영태 김용길 김원미 김은하 김은혜 김일한 김재원 김재현 김정훈 김중재 김지원 김지혜 김태분 류충열 마혜진 문영주 박대우 박재송 백연옥 성낙표 성용제 소경숙 손성원 송만호 송인성 신정섭 신정화 신화영 오정순 왕용분 유순희 유주홍 윤광길 이구영 이기주 이상복 이선영 이아름 이영애 이용원 이유미 이유진 이의선 이정목 이종임 이춘석 이충희 이혜선 이환기 임은희 장민호 장익봉 장재원 장정인 전영희 전택복 정옥순 정주영 조성진 진태임 최선옥 최수지 최인경 최호정 하지혜 한민수 홍진옥 황보혜영

3만원 강수진 공복순 권서영 권오규 김다예 김동교 김동원 김보람 김세련 김예린 김우선 김종숙 김태영 김혜진 나예원 남지원 명은원 문순일 문지수 문지원 문진아 민승철 박기혁 박민송 박혜빈 반세호 방애자 서명주 서미나 설보경 신은숙 양광석 양연선 양혜경 양혜영 이남희

기부자 명단

이성은 이안나 이예송 이예은
이예지 이재국 이주연 이혜민
임보나 장영훈 전영이 전지혜
정선희 정윤경 정재연 조경선
조은경 최광희 최소린 한보미
홍석화 홍예지 황영숙 황예린

4만원 박주은 배정환 신은진

5만원 김동택 김연수 김종남 김진경
남영란 남희경 박광필 박지혜
송복순 안선례 양원석 이부호
전은진 조유진 천유림 허성희
허정원 홍현숙

6만원 공지은 서성숙 이병철 정동주

7만원 임연식

10만원 강경옥 김장교 김진만 서광진
서수경 신치선 신호정 장명헌
정 완

11만원 유선미

27만원 조병수

100만원 이례장학

101만원 송순덕

재학생 및 가족

1만원 강애솔 강정희 고희자 권순길
기병문 김경남 김명선 김민아
김석정 김선경 김양순 김윤옥
김은이 김창현 김혜미 문성남
박기영 박대종 박미영 박민희
박재숙 선동하 선유정 송은라
신연정 신영옥 심희정 안소연
안양희 염인형 오미선 윤운섭
윤효심 이동기 이명희 이성란
이성령 이원혁 임동화 장영철
전계화 전명자 전용숙 정창금
최상모 최인호 최진석

2만원 김명숙 김애라 김현숙 박혜숙
서성식 엄미자 오옥경 이영림
전옥순 정해숙 최혜진 홍은선

3만원 김윤정 김은선 김재임 박재완
배정숙 서재형 안태유 이종권
조대의

4만원 박지성

5만원 김경식 김선주 김성안 김종호
김형태 유정열 이재현 이지은
이한빈 전영준 정미영 허용철

10만원 서병석 이상학 이은혜

교직원 및 가족

1만원 강신애 고성산 권관희 김미영
김병수 김봉재 김상일 김선준
김 성 김세미 김유진 김은실
김지성 김춘하 김형중 김혜성
류은미 문지예 민경은 박남일
박덕자 박묘서 박주양 서광철
안수자 양승원 윤명섭 이기훈
이문자 이승영 이종우 이지희
이호섭 장경순 장원경 전광선
전귀선 전영호 정은상 정지용
조아라 조영채 조형섭 최미영
하희수 허윤민 요시다고조

2만원 고진주 권민주 김남준 김동준
김세원 김인화 김장호 문행자
박성범 박준기 박태용 손정수
안 호 오철송 유성현 이상일
임현필 장길정 장지순 정영은
진달래 최지연 한상만 한정숙

3만원 김미숙 김은영 박민수 박재진
방진희 신재윤 유다운 유수연
이소연 정순애 추연진
한요게벳

4만원 김덕원

5만원 권순범 김덕현 김성호 김현동
박현희 신금주 신지수 유미나
이은광 장정순 최사랑

6만원 양희정 이성아 임환석

7만원 이광삼

9만원 권경만

10만원 강정원 고미숙 곽규상 구광면
김도경 김성경 김승호 김웅기
김정원 김정원 김태규 김현광
김현욱 김형미 박성환 오윤선
오은주 원영희 유정선 이소정
장인순 정순례 정휘진 조현진
조혜경 최육열 최은희 현우석

11만원 김중완 이복남

13만원 강규성 김정숙 한진호

15만원 김량헌 김은호 김희수

20만원 김창원 박 선 박태수 안정선
이강동 임지영 정해덕 조윤경
최영태

200달러 강일로

25만원 최선희

30만원 이민규

50만원 박인혁

61만원 최지은

100만원 정진애 홍설자

2,000달러 오영돈.강혜정

1,000만원 이인영

1,537만원 강우정.강 진

부설기관

1만원 권은지 길준호 김령오 김옥준
김은지 김지은 김태연 문유나
박제하 오윤아 임재택 차도영
최선영 허성보 호한나

2만원 전안나 홍옥주

3만원 권정아 권효진 김미화 김선화
김수진 김은솔 김주은 김현애
박미애 박천순 변송이 변윤영
서혜란 송애솔 유정현 이다솜
이선정 임지혜 임희주 장수진
장지영 정미옥 탁지혜 한송이

5만원 강진아 박미선 박연희 서영숙
여미희 이지연

10만원 조지선 지주나

15만원 김신덕 김화영 안미희 오동준
정나나 차 건

20만원 김승옥

25만원 신영자

510만원 이인경

권선제일교회

1만원 이상규

5만원 권선제일교회

동광교회

1만원 김복례 김영란 한미희
배 윤.김현진

밀알교회

1만원 서효정

비전교회

3만원 장석원

삼일성서교회

1만원 김초롱 오성군 정혜란 진재호
한금순

20만원 삼일성서교회

서문교회

1만원 강선애 박경자 윤인호 임용주

1만5천원 정찬수

20만원 서문교회

석계제일교회

1만원 채용문

2만원 오활란

성서대학교회

2,500원 이낙영

5천원 곽규상 김병철 김영숙 백순옥
이정민 임용택 최진두

1만원 강선영 강유진 고미숙 김배열
김상은 김숙재 김순자 김애숙
김영희 김온순 김윤선 김인영
김정숙 김지영 김지우 김지윤
김진철 김향순 김혜옥 김혜정
김희자 남지영 박경상 박선구
박용숙 박이숙 박인숙 박주형
박천순 방미경 백향원 손진희
송인희 송형기 안영숙 양순정
양천식 오경원 오윤아 오정연
용정자 윤영원 이가은 이관영
이길우 이대영 이대한 이선정
이선호 이영진 이영희 이정숙
이정임 이정철 이종옥 이주현
이지선 이지수 이진호 임숙정
장근문 전하준 전해성 정나영
정도유 정선희 조건희 조병하
조영희 조정선 조준희 조현진
최명순 최미숙 최영태 최용석
한성실 한충헌 허진순 황서린

1만5천원 김동수 김은미 유은주

2만원 강규성 권정숙 김민자 김혜진
박은유 박정하 박태수 변경선
신양금 신인옥 오경모 유정선
이명순 이봉호 이윤봉 임성일
임현필 장병호 정명수 조성민

2만5천원 권경만 김동준 김미선 김진숙

3만원 김영헌 김원태 이숙영 이은실
최대만

4만원 김일선 신재은

5만원 권태완 길용희 김동선 박세건
유형창 조혜경 최정권 한진호

6만원 최순남

26만5천원 김웅기

680만원 성서대학교회

수원교회

1만원 강동형 김미영 김상오 김일섭
홍성호

이레교회

1만원 손미희 이채은

장자교회

2만원 권정숙

5만원 장자교회

주향교회

1만원 유병우

2만원 정우진

3만원 주향교회

중앙성서교회

1만원 곽 해 김세현 김재혁 김정희
우용식 이승학 최경자 최영란
최영숙

2만원 신영옥 오근수 이수병
이준구.안춘자

3만원 김덕규 김옥자

5만원 김종구 한금례
중앙성서교회 권사회
원로 · 은퇴장로회

10만원 무 명 현희철 김윤규.신인자
중앙성서교회 바울선교회

12만원 황인돈.김순자

15만원 이혜선

24만원 중앙성서교회 구제위원회

500만원 중앙성서교회

퇴계원제일교회

1만원 유숙자 유재란

10만원 퇴계원제일교회

평원교회

1만원 성경아

평화교회

1만원 안종민

10만원 평화교회

15만원 김광석

풍암교회

1만원 유금례 윤은정

함평대동교회

1만원 김희경

효성교회

1만원 오혜숙 진효숙

2만원 김양례

일반

1만원 구필례 권숙영 권영욱 권창석
김균태 김기수 김대성 김동우
김명호 김미라 김배숙 김범설
김범준 김승애 김양권 김유벽
김은경 김인호 김진영 김천수
김효정 류계현 류찬성 박미숙
박영미 박영해 박영희 박지성
박해숙 소아름 송수용 오경희
오미라 오미선 오현숙 원영훈
유해연 유화실 윤주원 윤주하
이민우 이성희 이우윤 이원주
이유진 이현수 이혜숙 이호정
장명웅 장지화 정지수 조동빈
조목장 조언상 조여원 조은해
진윤승 최경숙 최범식 최서영
최은실 최인숙 하경국 한상은
황영수 위샐러듀

2만원 김윤숙 김종환 김하람 서병준
이일신 장병길 정주아 최국열
최지연 허정안 홍춘호

3만원 김미수 장문석

4만3천원 박은영

5만원 강한성 석지현 이미경 이천화
주은자 차인숙 한현숙

6만원 무 명

10만원 류동원 박경혜 이기운

30만원 박순정

36,000달러故 강덕희

단체 및 기관

1만원 (주)대우노즐/(주)삼현미디어/
김포예수사랑교회/꿈꾸는교
회/동두천성실교회/맘키즈푸
드/행복한교회

2만원 (주)삼삼전기관리공사/(주)엘리
트코리아/동신자원/성복중앙
교회/열방교회/예수꿈사랑교
회

3만원 강남임마누엘교회/금곡광염교
회/새샘교회/섬기는교회/신작
교회/우리교회/의정부좋은나
무교회/태광성서교회/푸른동
산교회

5만원 다드림교회/상일교회/일동성
서교회/천성교회/충은교회/하
늘누림교회/행전교회/향기나
무

10만원 (주)아이앤유니/(주)이레E&C이
레디자인/가성교회/구리중앙
교회/대광교회/두암산업(주)/
만나교회/상록교회/오감발달
연구소/제트전기

14만원 우리회

20만원 (주)소원기건/서부중앙교회

200달러 우리침례교회

30만원 구리성광교회/노아인터내셔날
/염창중앙교회/총학생회/한민
제일교회

100만원 교수부/도서출판현문사

150만원 한국장학재단

소계(20190521~20190620)
127,405,799

누계(20190301~20190620)
334,314,552